

등산길 마시는 약수 한 잔... 명산이 뽐어내는 '청량제'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18 약수터

북적이던 수십 곳 물 고갈·수질 악화

너덜경·중머리재 등 7곳만 명맥 유지

요즘처럼 폭폭 찌는 무더위를 만나면 시원한 무등산 약수 한 모금이 그리워진다. 물 맑은 무등산에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십곳에 이르는 샘터(약수터)가 있었고, 여름이면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물이 고갈되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너덜경, 중머리재, 평두메, 구 중심사관리소, 산장광장, 청풍샘터, 총장사 등 7곳만 약수터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자연샘터는 너덜경과 중머리재, 평두메 등 3곳뿐이며, 최근 꼬막재와 늦재 샘터도 폐쇄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무등산의 약수터를 소개한다.

◇마실 수 있는 무등산 약수터(샘터)

▲**너덜경(선덕사) 샘터**=토끼등(해발 460m) 능선에서 바람재 방향으로 100m쯤 가면 길 오른쪽에 있는 샘터가 너덜경(선덕사) 샘터다. 1970년대 초까지 이곳에 선덕사라는 무당의 암자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선덕사 샘터로도 불린다. 올 8월처럼 40도에 육박

하는 더위에도 손을 담그고 있기 어려울 만큼 물이 차가운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겨울에는 영하의 추위에도 손을 녹일 만큼 따뜻하다. 도로가 들어서기 전에는 무당이나 여인들이 촛불을 켜놓고 공을 들이는 장소로도 애용됐다.

▲**중머리재 샘터**=중머리재에서 장불재로 올라가는 어귀에 있는 중머리재 샘터는 수많은 등산객의 목을 적셔주는 곳이다. 특히 무등산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샘터로, 주말이나 휴일이면 약수를 맛보려는 등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샘터 주변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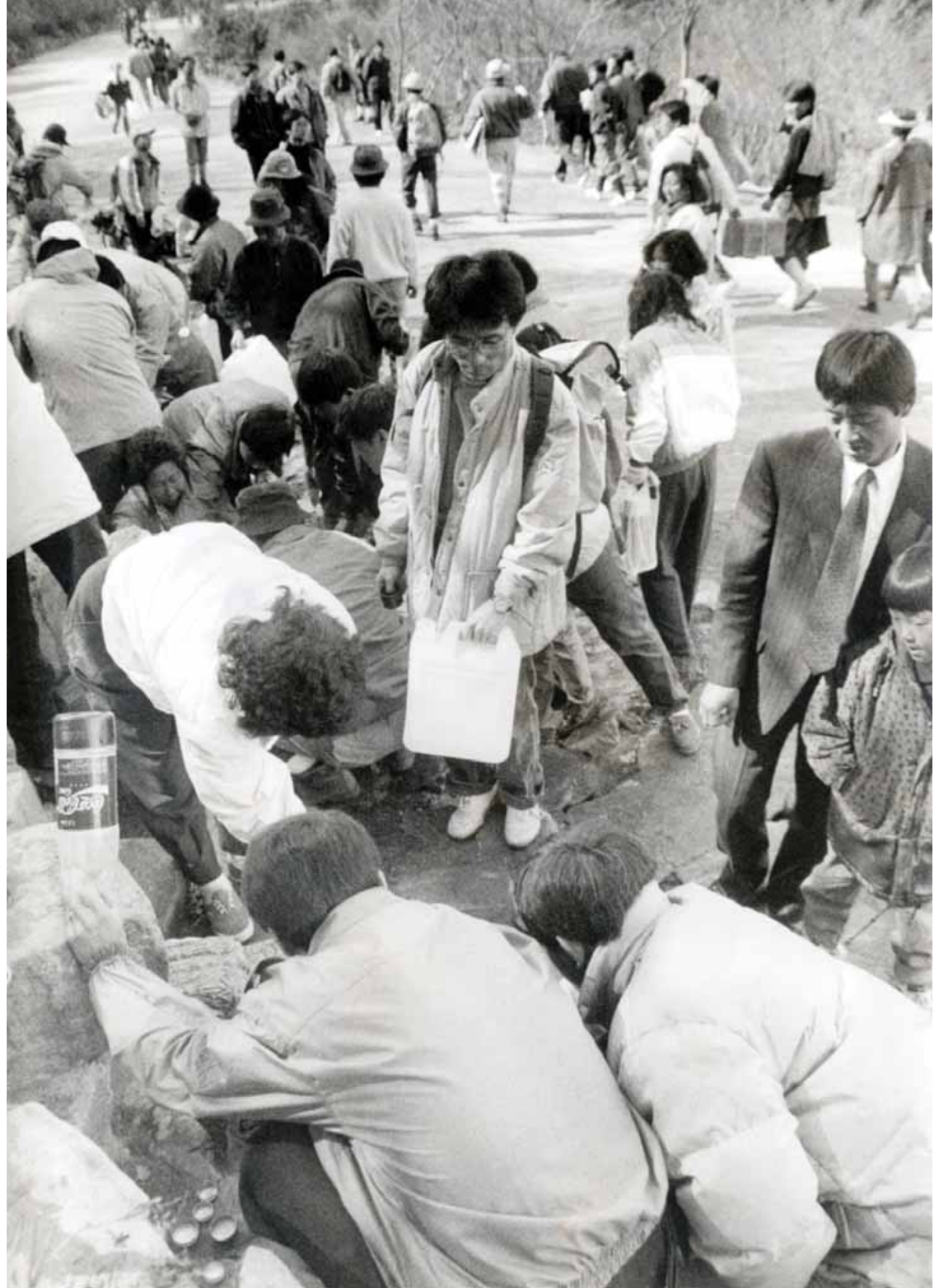
▲**평두메 샘터**=총민사 입구 오른쪽 길을 따라 작은길로 접어들면 좌측 계곡 숲 사이로 돌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따라 50m 정도 올라가면 숲속 공터에 평두메 약수터가 보인다. 뒤편에는 대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끼 난 돌 사이로 시원한 물이 솟아나온다. 약수터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적막한 무등산의 풍경이 잘 어울리는 곳이다.

▲**구 중심사관리소 샘터**=중심사관리소 입구를 지나 조금 오르다 보면 문빈정사 맞은편에 화강암 음수대가 보이는데, 바로 구 중심사관리소 약수터다. 중심사 방향으로 무등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약수터다.

▲**산장광장 샘터**=산장(원효사) 버스 종점에서 내려 공원관리소에 이르면 맞은편 광장의 잔디밭 끝에 산장광장 약수터가 조성돼 있다. 광장의 중앙에는 무등산공유화운동상징탑도 세워져 있다.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된 무등산 공유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산장광장 약수터의 가장 큰 매력은 약수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면 무등산 정상부가 한 쪽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것이다.

▲**청풍샘터 샘터**=전망대를 지나 제4수원지에 이르면 정면에 청풍샘터가 새겨진 바위가 있고, 그 뒤 돌계단을 오르면 좌측에 샘터가 있다. 샘터 뒤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조성돼 있다.

▲**총장사 샘터**=총장사 입구 관리소 오른쪽 돌길을 따라가면 돌무더기로 모양을 낸 음수대가 보인다. 주변에는 샘터가 조성돼 있고, 우거진 수목들 사이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운치를 더해준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1991년 3월 무등산 너덜경 샘터를 찾은 시민들이 약수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폐쇄된 약수터

늦재·꼬막재 고갈...장불재·규봉암은 흔적만

무등산에서 시민들의 사랑의 한몸에 받은 샘터들이 물이 마르거나 오염돼 폐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늦재와 꼬막재 샘터가 물이 고갈돼 폐쇄했으며, 돌샘·봉황대·동화사·규봉암·덕산·석불암·삼밭실, 샘골, 잣고개, 입석대, 천문사, 장불재, 백운암 등도 흔적만 남아있다.

▲**늦재 샘터**=늦재삼거리에 있던 늦재샘터는 시원하고 맑은 물로 호평을 받았던 샘터였다. 특히 경쾌한 새소리가 끊이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잠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았던 곳이다.

▲**꼬막재 샘터**=무등산장에서 규봉을 향해 꼬막재에 오르던 있던 샘터다. 주변에 삼나무와 편백이 울창하고, 여름과 초가을엔 각종 야생화들이 반발해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던 곳이다. 늦재와 함께 최근 물이 고갈돼 폐쇄됐다.

▲**석간수(돌샘) 샘터**=토끼등(해발 460m)에서 중머리재쪽으로 100m정도 가면 오른쪽 산비탈에 있던 샘터다. 큰 바위사이에서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석간수 또는 돌샘 샘터로 불렸다. 1980년대만 해도 위장병에 좋은 물로 소문이 나면서 물을 받아가려는 시민들이 몰려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했던 곳이다.

▲**봉황대 샘터**=바람재에서 석간수 샘터를 지나 중머리재쪽으로 300m정도 가면 봉황대 터가 있고, 그 위 언덕에서 샘물이 솟아올랐다. 원래는 천제단에서 제를 모시고 봉화를 올리던 신성한 곳으로,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인기를 끌었던 약수터다.

▲**동화사 샘터**=토끼등에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나면 돌계단을 만나는 데 그 끝에 있던 샘터로, 야생화 숲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규봉암 샘터**=규봉암 뒤 버림바위에서 석간수가 나왔는데, 그 밑 바위를 오목하게 파서 물받이를 해왔던 곳이다. 시원하고 단맛이 나고, 무등산에서 가장 좋은 물로 정평이 났던 곳이다.

▲**석불암 샘터**=석불암 어귀 우측에 있던 곳으로, 1급수 이상 맑은 물에만 산다는 토화가 서식했던 곳이다. 사시사철 물이 맑고 시원해서 암자를 찾은 사람들이나 산행객들이 꼭 들렀던 샘터다.

▲**입석대 샘터**=입석대 바위틈에서 솟아나오던 샘물로, 바로 옆에는 입석암이라는 절터와 무등산 산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었다.

▲**샘골**=장불재 아래 200m 지점에 있던 샘으로, 용추계곡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과거 화순·동북 주민들이 장불재를 넘나들 때 갈증을 풀어주던 샘이기도 하다.

▲**천문사 샘터**=중머리재 서쪽 기슭 산악 대피소 옆에 있던 샘터로, 물길이 마르기 전까지는 중심사 계곡의 발원지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집이 있어 샘터를 관리했으며, 산악인들의 휴게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삼밭실 샘터**=원효계곡에서 주검동을 지나 삼밭실 아래 있던 샘터로, 물맛이 차고 달아 과거 나무꾼들이 애용했던 약수터로 알려져 있다.

▲**잣고개 샘터**=잣고개 너머 장원봉 밑에 샘터가 3군데가 있었는데, 아홉 등산객의 목을 축여주던 곳이다. 물맛이 달아 약수라 부르기도 했다.

▲**백운암 샘터**=봉황대에서 중머리재로 가는 왼쪽 백운암 절터에 있던 샘터다. 수량이 풍부하고 시원해 중머리재로 가는 길에 잠깐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물길이 줄어들고 오염돼 1998년 폐쇄됐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문명호 작 '무등의 꿈' (2013년)
캔버스에 유채(116.7 x 91cm)



“완만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광주를 껴안고 있는 무등을 바라보면 포근함이 느껴진다. 무등산 아래 드리워진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장미 등 여러 가지 꽃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묘사했다. 광주를 화려하고 몽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광주와 시민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희망을 표현했다.”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hong79.com
홍스페이스
☎ 1899-0240

던롭침대 | 세계최초 라텍스침대 코잔드침대 | 온열, 안마침대